

경제동향

요 약

경 기 생산/출하/재고

고 용 취업자/실업자/물가

금 용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요 약

경기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침체 지속
 -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재고가 증가하여 경기하강국면 지속
 - 산업생산은 작년 5월에 비해 16.3% 감소하고 생산자 제품재고는 5.9% 증가

고용

- 서울의 실업률 소폭 증가
 - 실업률은 4.7%로 4월에 비해 0.1%p 상승하고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
- 서울의 소비자물가 하락세
 - 계절적 요인에 의해 농축수산물에 하락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 부문도 내려 0.3% 하락

금융

- 금리 하락세 지속
 -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로 인해 금리는 0.09%p 하락
- 종합주가지수 하락세
 - 미국 주가 상승, 외국인 순매수로 인하여 종합주가지수는 6.5% 하락
- 원/달러 환율 상승
 - 위안화 절상 가능성 기대약화와 미국 경기지표 호전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1.1% 상승
- 서울의 창업동향 소폭 개선
 - 신설법인수는 1,799개 업체로 4월에 비해 0.6% 증가하고 어음부도율은 0.01%p 하락

부동산

- 서울의 건설경기 침체 지속
 -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5월에 비해 17.4% 감소하고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 주택 매매가격은 4월에 비해 0.6% 상승하고 4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표〉 5월 주요경제 지표의 증감

(단위: %, %p)

구 분		2004.5	2005.2	2005.3	2005.4	2005.5
경기	산업생산	5.5	-15.4	-0.6	-3.5	-16.3
	생산자 제품재고	6.0	4.6	7.4	11.3	5.9
고용	실업률	-0.3	0.0	-0.3	-0.3	0.1
	소비자물가	0.1	0.6	0.6	0.2	-0.3
금융	국고채(3년)	-0.19	-0.02	-0.13	-0.15	-0.09
	환율	-1.1	-1.9	0.9	-1.8	1.1
부동산	건축허가면적	-31.2	-23.5	-14.6	-7.4	-17.4
	주택매매가격	0.1	0.6	0.3	0.7	0.6

주: 증감의 비교시점은 전년동월대비임, 단 금융, 고용, 주택매매는 전월대비임

| 생 · 산 |

중공업부문 감소세 확대로 산업생산 하락

✓ 전국 산업생산 소폭 상승

- 전국의 산업생산은 작년 5월에 비해 4.3% 증가하여 4월(3.8%)보다 소폭 확대됨
- 이는 섬유제품, 인쇄출판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부문 등이 증가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자동차(15.3%), 반도체(10.9%), 화학제품(6.9%) 등이 산업생산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섬유제품(-7.3%), 인쇄출판(-7.3%), 사무회계용 기계(-5.1%) 등은 감소를 나타냄
- 전국의 산업생산은 고유가와 수출둔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3개월째 이어짐

✓ 서울 산업생산 큰 폭으로 하락

- 서울 산업생산은 작년 5월에 비해 16.3% 감소하여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전국의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설연휴로 인해 생산차질이 빚어졌던 2월(-1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서울에 집중된 산업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 중공업부문이 크게 감소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제품(2.8%)은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66.6%), 기타기계 및 장비(-35.2%)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됨

✓ 서울 산업생산 중공업부문, 경공업부문 모두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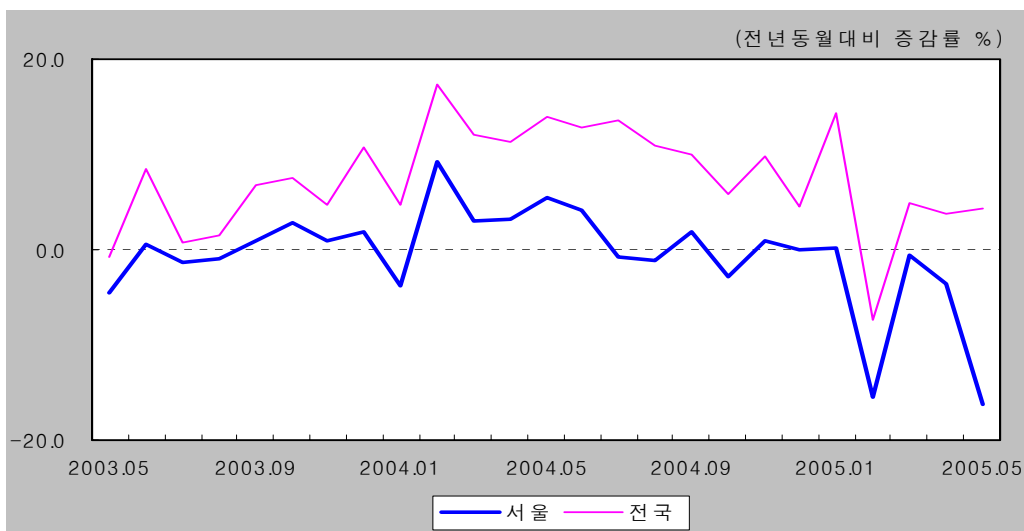
- 산업구조별로 보면 중공업부문은 작년 5월보다 38.1% 감소하여 4월(-6.4%)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경공업부문은 4.5% 감소하여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됨
- 중공업부문에서 세부업종별로 조립금속제품(12.3%)은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66.6%), 가구 및 기타제품(-48.8%), 기타기계 및 장비(-35.2%)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됨
- 경공업부문에서는 의복 및 모피제품(2.8%)이 증가하였으나, 종이제품(-18.6%), 인쇄출판(-5.6%) 등이 감소를 나타냄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5	2005.2	2005.3	2005.4	2005.5
전년동월비	전국	13.9	-7.3	4.9	3.8	4.3
	서울	5.5	-15.4	-0.6	-3.5	-16.3
	중공업	7.4	-28.1	1.1	-6.4	-38.1
	경공업	4.5	-10.3	-3.6	-3.1	-4.5
전월비	전국	1.4	-4.6	3.9	-1.6	0.5
	서울	0.9	-7.6	12.9	-4.0	-13.4
	중공업	3.8	-20.3	55.2	-16.5	-31.4
	경공업	-1.3	-14.6	18.8	0.4	-2.8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 · 하 |

생산자 제품출하 큰 폭 감소

-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 소폭 증가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는 작년 5월에 비해 3.6% 증가하여 4월(2.8%)보다 소폭 증가함
 - 이는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부분의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자동차(15.4%), 반도체(10.9%), 기타운송장비(5.2%) 등은 증가하였으나 인쇄출판(-8.8%), 섬유제품(-6.1%)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전반적으로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는 3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이 지속되어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큰 폭으로 감소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는 작년 5월에 비해 18.0% 감소하여 4월(-2.5%)보다 감소폭이 확대됨
 - 전국의 제품출하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아직 정체된 모습을 보임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70.9%), 기타기계 및 장비(-32.8%), 고무 및 플라스틱(-32.0%)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제품(2.7%) 등에서 증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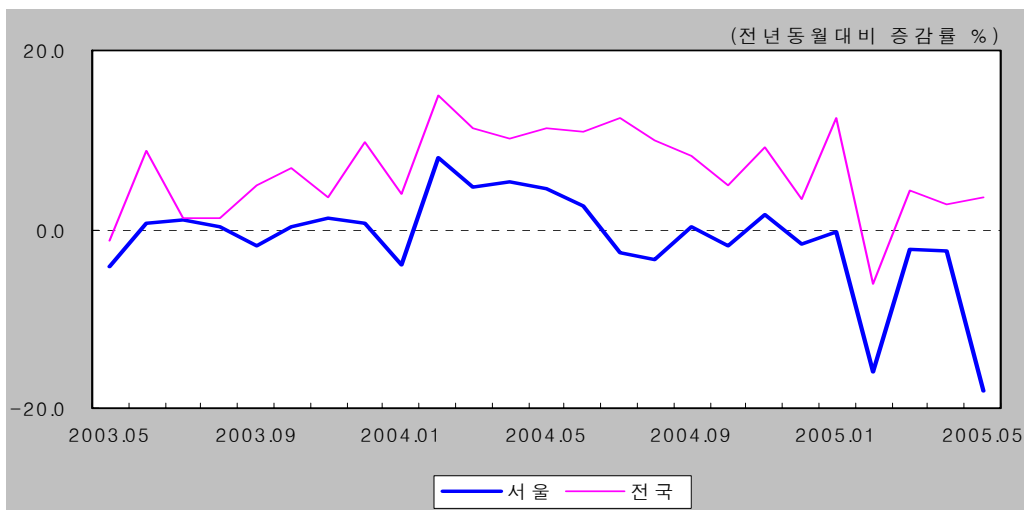
-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중공업부문, 경공업부문 모두 감소세 지속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작년 5월에 비해 40.7%로 큰 폭 감소하였고, 경공업부문은 5.1%로 감소를 나타냄
 - 중공업부문에서는 세부업종별로 조립금속제품(3.0%)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70.9%), 가구 및 기타제품(-42.9%)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 경공업부문에서는 종이제품(-20.6%), 가죽, 가방 및 신발(-6.8%), 인쇄출판(-6.3%) 등이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제품(2.7%), 음식료품(1.7%) 등에서 증가를 나타냄

〈표〉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5	2005.2	2005.3	2005.4	2005.5
전년동월비	전국	11.3	-6.1	4.4	2.8	3.6
	서울	4.6	-15.9	-2.3	-2.5	-18.0
	중공업	4.2	-27.2	-0.2	-1.8	-40.7
	경공업	5.0	-11.7	-6.5	-4.4	-5.1
전월비	전국	0.9	-4.3	3.5	-1.8	0.6
	서울	0.1	-6.7	10.2	-2.0	-17.0
	중공업	1.1	-16.7	50.2	-13.4	-38.9
	경공업	-2.8	-14.1	16.4	0.7	-3.5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둔화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둔화

-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작년 5월에 비해 10.2% 증가하여 전월(12.0%)보다 증가세가 둔화됨
- 이는 반도체, 제1차 금속 등은 증가하였으나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이 감소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제1차 금속(28.6%), 반도체(28.2%), 석유정제(19.3%)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무회계용 기계(-14.0%), 섬유제품(-6.6%)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재고율은 103.0%로 제조업 부문의 재고지수가 출하대비 소폭 확대되면서 전월에 비해 0.1%p 증가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둔화

- 서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작년 5월에 비해 5.9%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제품재고(10.2%)보다 낮은 수준임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35.6%), 의복 및 모피제품(33.6%) 등이 증가하였음
-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69.0%), 컴퓨터 및 사무기기(-52.4%)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재고율은 156.1%로 지난달보다 26.4%p 증가하여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중공업부문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경공업부문 증가세 지속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작년 5월에 비해 31.2% 감소하여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경공업부문은 25.5%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중공업부문에서는 세부업종별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69.0%), 컴퓨터 및 사무기기(-52.4%)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가구 및 기타제품(34.6%), 기타 및 전기기계(12.9%) 등은 증가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음식료품(35.6%), 의복 및 모피제품(33.6%) 등은 증가하였으나, 종이제품(-41.8%), 가죽, 가방 및 신발(-30.9%) 등이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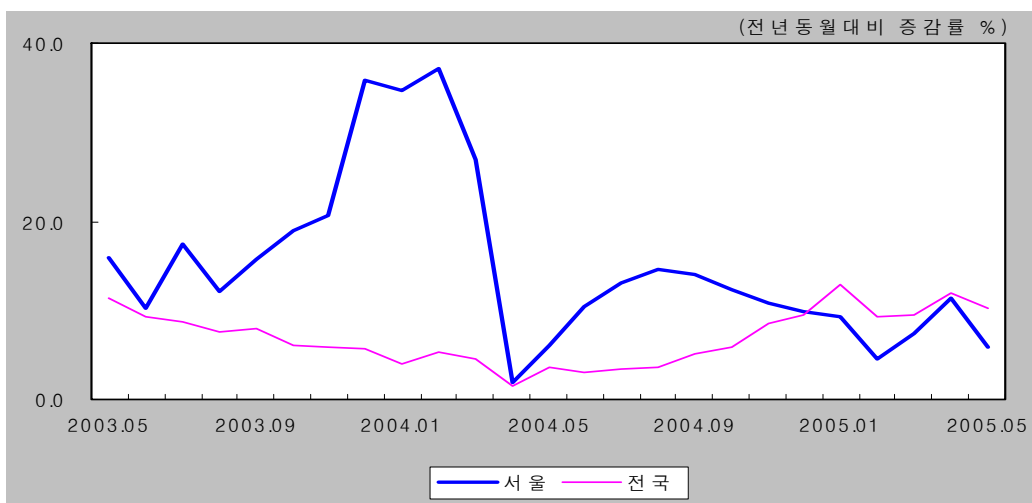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5	2005.2	2005.3	2005.4	2005.5
전년동월비	전국	3.6	9.3	9.4	12.0	10.2
	서울	6.0	4.6	7.4	11.3	5.9
	중공업	-17.0	-13.5	-13.5	-12.2	-31.2
	경공업	24.0	17.3	22.1	22.7	25.5
전월비	전국	2.5	-0.4	0.8	1.3	0.7
	서울	4.4	-1.4	0.5	-8.6	-0.8
	중공업	12.9	-11.1	-2.6	-28.3	-11.5
	경공업	3.3	-1.7	3.0	2.2	5.7
재고율	전국	94.3	102.5	99.8	102.9	103.0
	서울	116.3	156.1	139.8	129.7	156.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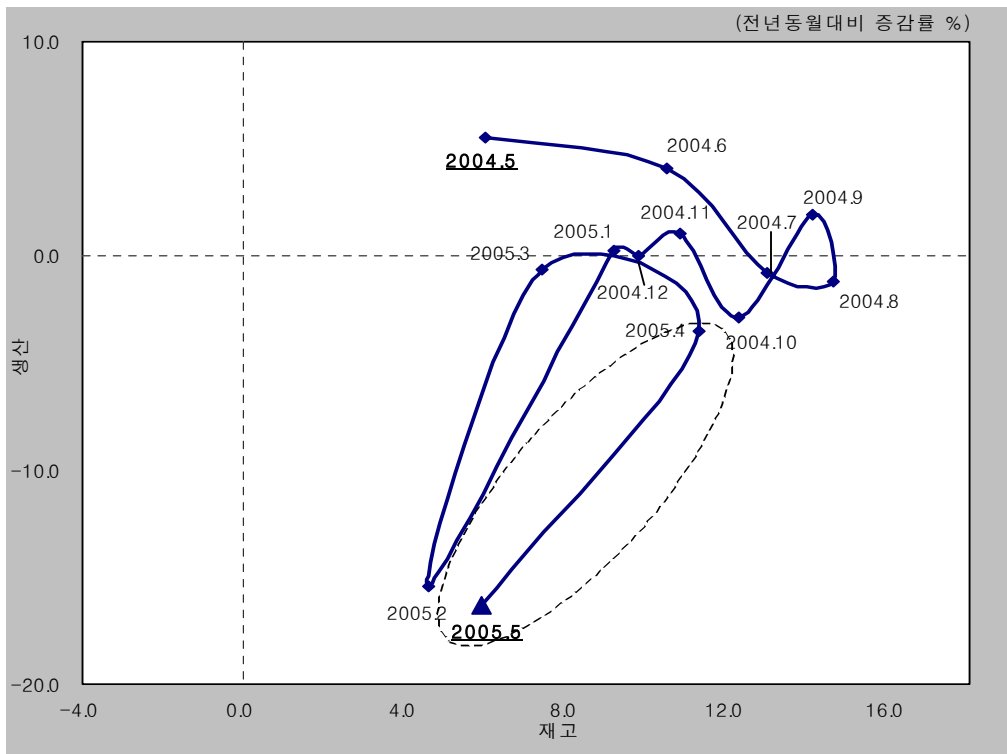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생산 감소, 재고의 증가세 둔화로 경기침체 지속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는 5월중 하강국면 지속

- 생산·재고 증가율의 경기국면 분석에 의하면 서울 경기는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재고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생산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2월(-15.4%)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경기저점으로 향하고 있음
- 생산자 제품재고는 2004년 8월(14.6%)이후 재고의 증가세 둔화가 계속되어 재고조정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 취·업·자 |

서울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전국의 5월중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전국의 취업자는 23,199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2%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499천명으로 0.9% 상승
- 전국의 고용사정 개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농림어업과 건설기성 확대에 의한 건설부문의 취업자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4월 1,851천명이었던 건설업 취업자는 3.1% 상승을 보여 전년동월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이외, 농림어업(6.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이 증가를 나타냄

✓ 서울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서울의 취업자는 4,912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0.4% 증가
-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24천명으로 1.6% 감소하여 2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의 취업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 취업자 및 건설업 부문 고용사정 개선

- 성별 취업자로는 남성이 2,838천명으로 지난달과 동일하고, 여성이 2,074천명으로 1.0% 증가
-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 증가세를 보여 건설업은 9천명(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5천명(1.4%)이 증가함
- 반면, 제조업(-1.3%), 전기·운수·통신·금융업(-0.7%)은 감소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및 상용근로자 증가

- 직업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8%), 서비스·판매종사자(0.3%), 전문·기술·행정관리자(0.3%), 사무 종사자(0.1%) 등이 증가를 나타냄
-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1.3%), 임시근로자(0.8%)가 증가한 반면 일용근

로자(-1.9%)는 감소를 나타냄

-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0.3%)가 감소하였고 자영업주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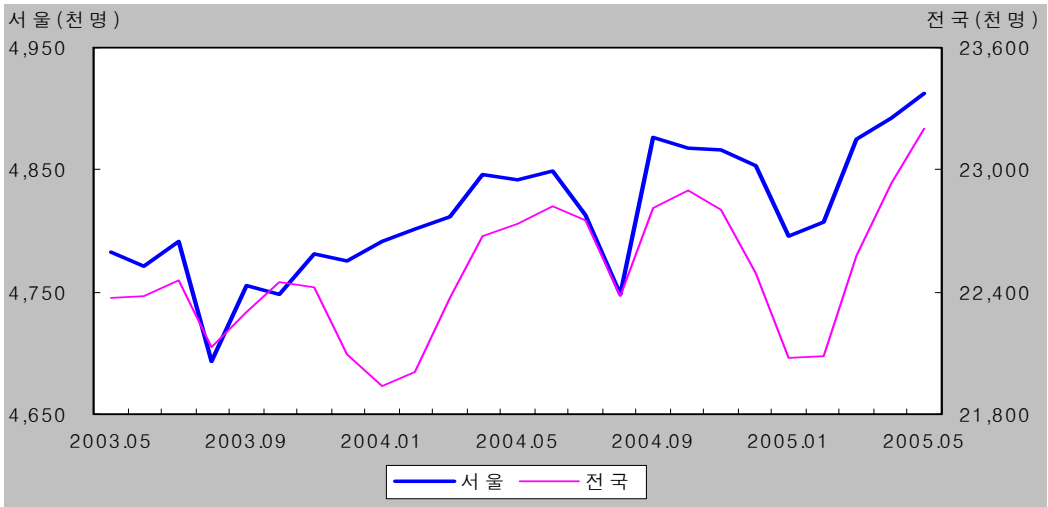
〈표〉 2005년 5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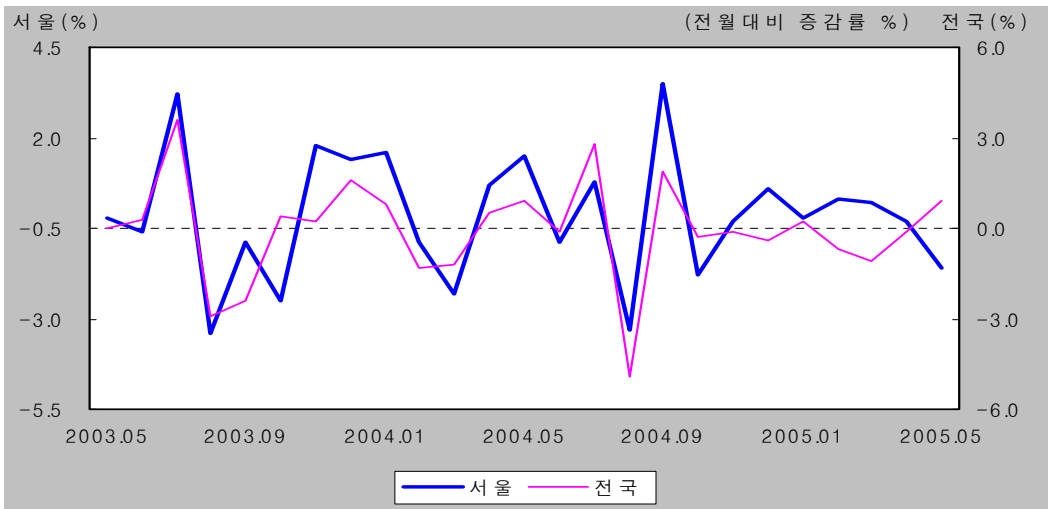
구 분	2004.5	2005.4	2005.5	전 년 동 월 비		전 월 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국	22,738	22,934	23,199	460	2.0	265	1.2
	서울	4,842	4,892	4,912	71	1.5	20	0.4
청년층 취업자	전국	4,598	4,458	4,499	-99	-2.2	41	0.9
	서울	1,161	1,142	1,124	-37	-3.2	-18	-1.6
성별 취업자	남자	2,798	2,838	2,838	40	1.4	1	0.0
	여자	2,044	2,054	2,074	31	1.5	20	1.0
산업별 취업자 (서울)	농림어업	6	5	6	-1	-9.8	1	19.6
	광공업	806	815	804	-2	-0.3	-11	-1.3
	제조업	805	814	803	-2	-0.3	-11	-1.3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030	4,073	4,103	73	1.8	30	0.7
	건설업	412	428	437	24	5.9	9	2.1
	도소매·음식숙박	1,447	1,410	1,411	-36	-2.5	1	0.0
	사업개안공공서비스	1,643	1,706	1,731	87	5.3	25	1.4
전가운수통신·금융	528	529	525	-3	-0.5	-4	-0.7	

주: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동향



<그림> 서울과 전국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실 · 업 · 자 |

실업률 소폭 증가

✓ 전국의 5월중 실업자 감소세 지속

- 전국의 실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46천명 감소한 811천명으로 5.4% 감소
- 실업률은 3.4%로 전월보다 0.2%p 감소하여 미약하지만 고용개선 신호를 보임

✓ 서울의 실업자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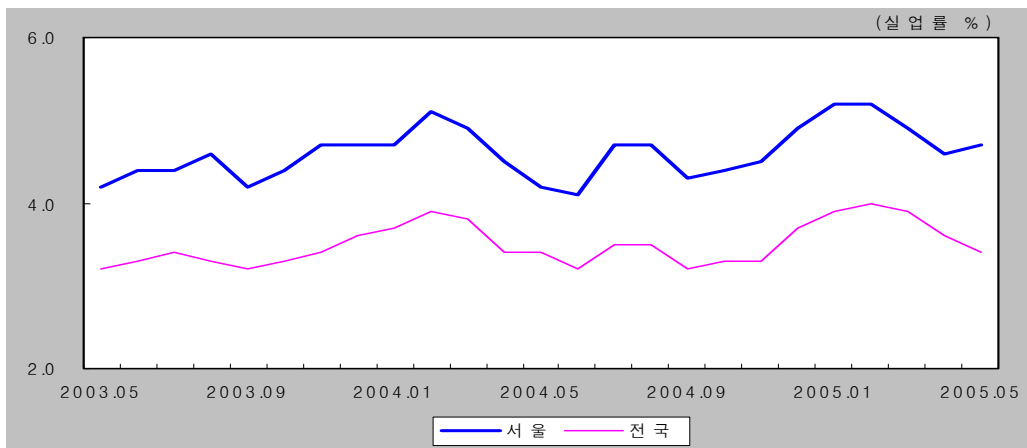
- 서울의 실업자는 243천명으로 전월보다 2.8% 상승하여 4월(-6.7%)에 비해 증가세로 전환됨
- 실업률은 4.7%로 전월보다 0.1%p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실업률보다 1.3%p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 서울의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

〈표〉 2005년 5월 실업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04.5	2005.4	2005.5	전 년 동 월 비		전 월 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국	실업자	788	857	811	23	2.9	-46	-5.4
	실업률	3.4	3.6	3.4	0.0	-	-0.2	-
서울	실업자	210	236	243	33	15.6	7	2.8
	실업률	4.2	4.6	4.7	0.5	-	0.1	-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소비자물가 하락세로 반전

- ✓ 전국의 5월중 소비자물가 하락세로 반전
 -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2% 하락하여 4월(0.1%)에 이어 안정된 모습을 보임
 - 이는 농산물 및 공업제품물가가 하락하였으며, 그 외 집세와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서비스물가가 안정됨에 기인함

- ✓ 서울의 소비자물가 하락세로 반전
 -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3% 하락하여 전국보다 낮은 수준임
 - 서울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농산물 출하증가로 채소류와 과일류 등 농축수산물이 하락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 부문이 내려 200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됨

- ✓ 상품부문은 하락세로 반전, 서비스부문은 상승세로 반전
 - 상품성질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을 포함하는 상품부문은 채소 및 과일류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리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 부문이 내려 0.5% 감소함
 -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부문은 도시가스 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0.1% 증가
 - 비목별로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광열·수도(0.6%)와 의류 가격이 인상된 피복 및 신발 부문(0.5%) 등은 상승하였으나, 농산물 출하증가로 인한 식료품(-0.6%), 석유류 가격이 내린 교통·통신(-0.4%) 부문 등이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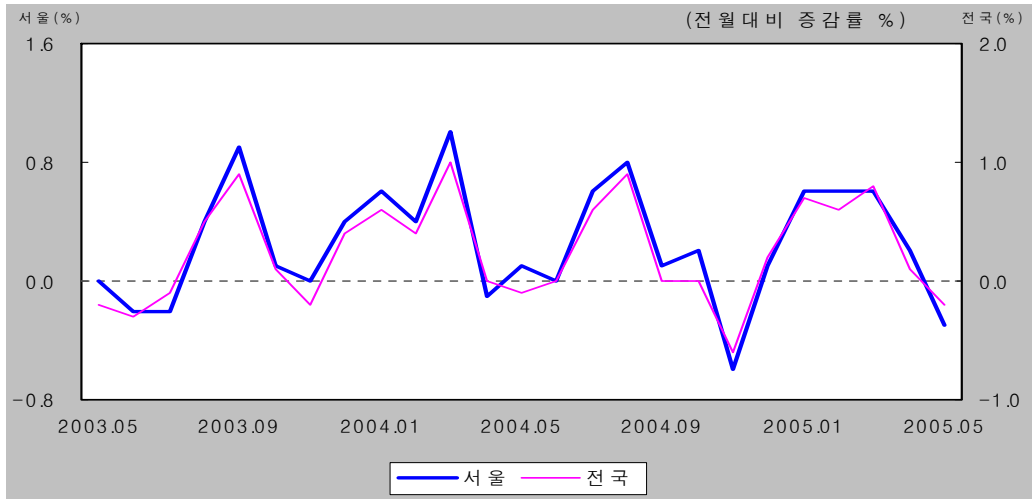
- ✓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모두 하락세로 반전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위주로 하는 생활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4% 하락
 - 계절적 변동이 큰 어개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과일 등 농산물의 출하량 증가로 4.1% 하락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 단위: %)

구 분		2004.5	2005.2	2005.3	2005.4	2005.5	
전년동월비	전국	3.3	3.3	3.1	3.1	3.1	
	서울	3.6	3.3	2.9	3.2	2.8	
	성질별	상품	4.2	4.3	4.0	4.7	4.2
		서비스	3.1	2.7	2.2	2.1	2.0
	생활물가	4.6	5.3	4.8	5.3	4.9	
	신선식품	12.0	5.1	6.4	8.8	8.8	
전월비	전국	-0.1	0.6	0.8	0.1	-0.2	
	서울	0.1	0.6	0.6	0.2	-0.3	
	성질별	상품	0.0	1.2	0.5	0.5	-0.5
		서비스	0.1	0.2	0.7	-0.2	0.1
	생활물가	0.0	0.9	1.1	0.2	-0.4	
	신선식품	-4.1	7.0	1.6	2.2	-4.1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장기추이

| 시 · 증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세 지속

-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하락세 지속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로 인해 5월중 0.09%p 하락한 3.67%를 나타냄
 - 국채거래량은 4월 112.9조원에서 5월 130.9조원으로 증가
 - 국고채 발행규모는 4월 4.96조원에서 5월 5.12조원으로 소폭 증가

- ✓ 회사채 수익률도 하락세
 - 회사채 수익률(3년)은 국고채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어 지난달에 비해 0.10%p 하락한 4.08%를 나타냄
 - 회사채 발행규모는 4월 4.23조원에서 5월 5.03조원으로 증가
 - CD(91일)는 지난달에 비해 0.04%p 상승한 3.52%를 기록
 - 콜금리(1일)는 지난달과 동일한 3.29%를 기록

- ✓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세 지속
 - 장·단기 금리차는 월중 축소세가 지속되어 월초 0.49%p에서 월말 0.38%p으로 축소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 %p)

구 분	2004.12	2005.1	2005.2	2005.3	2005.4	2005.5	전월비
국고채(3년)	3.28	4.06	4.04	3.91	3.76	3.67	-0.09
회사채(3년)	3.72	4.53	4.49	4.34	4.18	4.08	-0.10
CD(91일)	3.43	3.57	3.55	3.54	3.48	3.52	0.04
콜금리(1일)	3.29	3.26	3.28	3.26	3.29	3.29	0.00
장·단기 Spread	-0.01	0.80	0.76	0.65	0.47	0.38	-
종합주가지수	895.92	932.70	1,011.36	965.68	911.30	970.21	6.5
코스닥지수	380.33	472.95	498.38	455.03	424.40	471.48	11.1
환률(∕US\$)	1,035.1	1,025.6	1,006.0	1,015.5	997.10	1,007.70	1.1

주: 장·단기 Spread: 국고채-call금리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률은 전월대비 증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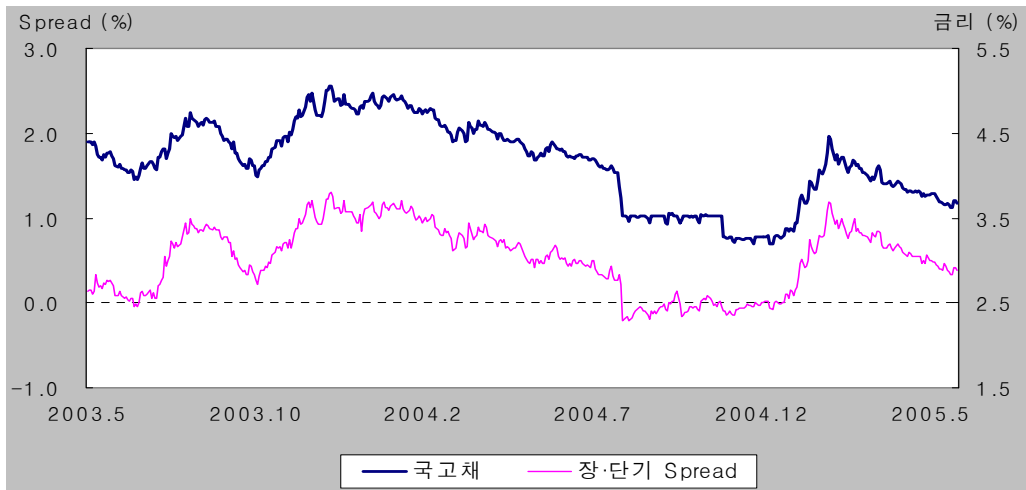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주가는 5월중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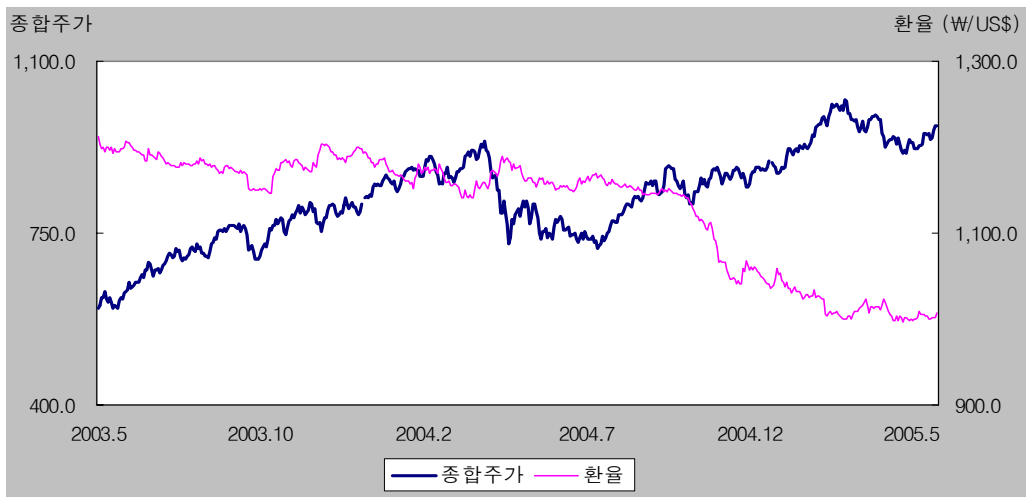
- 종합주가지수는 미국 주가 상승, 외국인 순매수로 인하여 6.5% 상승한 970.21p를 나타냄
- 코스닥지수도 종합주가지수와 동반 상승하여 4월말보다 11.1% 상승한 471.48p를 나타냄
- 거래소 외국인은 4월 1,990억원 순매도에서 5월 1,410억원 순매수로 반전

✓ 원/달러 환율은 5월중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약화와 미국 경기지표의 호전 등으로 인해 5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
- 원/달러 환율은 5월중 1.1% 상승하여 월말에 1,007.70으로 마감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업·동·향 |

신설법인수 증가

- ✓ 서울의 5월 신설법인수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수는 1,799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0.6% 증가하여 창업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전국 신설법인은 지난달에 비해 소폭(-1.1%) 감소하였음
- ✓ 제조업의 신설법인수 증가
 - 제조업의 신설법인수는 228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21.3% 증가
 - 세부업종별로는 음식료품(160.0%), 고무 및 화학제품(118.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41.2%) 그리고 출판 및 인쇄업(39.1%)의 증가폭이 큼
- ✓ 건설업 및 설비업 신설법인수 증가
 - 건설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수는 147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37.4% 증가
 - 세부업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300.0%)과 건설업(21.8%) 모두 증가
-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 감소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는 1,423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4.6% 감소
 - 세부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25.6%), 도매 및 소매업(-15.0%)이 하락한 반면 통신업(1,400.0%), 교육서비스(188.9%), 운수업(94.1%)이 증가하였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 %)

구분	2004.5	2005.4	2005.5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622	4,546	4,497	875	24.2	-49	-1.1
서울	1,569	1,789	1,799	230	14.7	10	0.6
제조업	215	188	228	13	6.0	40	21.3
건설 및 설비업	121	107	147	13	6.0	40	37.4
서비스업	1,232	1,491	1,423	26	21.5	-68	-4.6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어음부도율 안정세 유지

- ✓ 서울의 5월 어음부도율은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지난달에 비해 0.01%p 하락하여 작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 유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국 어음부도율 0.05% 보다 낮은 수준임
- ✓ 서울의 5월 부도업체 수는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13개 업체로 지난달 보다 7개 업체 증가
 - 전국 부도업체 수는 313개 업체로 지난달 보다 17개 업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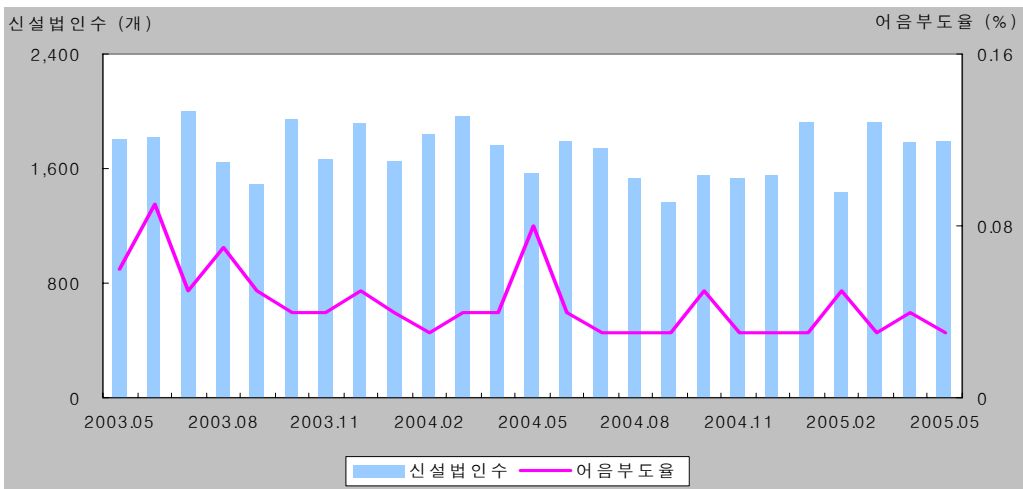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 %, %p)

구 분		2004.5	2005.4	2005.5	전년동월비 증감	전월비 증감
전국	어음부도율	0.1	0.05	0.05	-0.05	0
	부도업체 수	374	296	313	-61	17
서울	어음부도율	0.08	0.04	0.03	-0.05	-0.01
	부도업체 수	152	106	113	-39	7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건설경기 하락세 지속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2005년 5월에도 하락세 지속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5월에 비해 17.4% 감소하여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 반면,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경기(61.7%), 경북(56.1%)등의 증가로 인하여 작년 5월에 비해 4.8% 증가

-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 모두 전반적인 감소세
 -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연립(-43.7%)의 감소 폭이 큼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의 큰 폭 감소로 인하여 작년 5월에 비해 19.6% 감소함
 - 전반적인 건축허가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 및 교육시설/사회(176.7%)부문과 공업(64.3%)부문은 증가세를 나타냄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분		2004.5	2005.4	2005.5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11,263	10,071	11,807	4.8	17.2
서울		1,281	943	1,058	-17.4	12.3
주거용	소계	438	279	380	-13.3	36.3
	단독	17	21	14	-14.8	-32.0
	연립	104	49	59	-43.7	18.7
	아파트	317	208	306	-3.4	47.3
비주거용	소계	844	664	679	-19.6	2.2
	상업	601	417	305	-49.2	-26.8
	공업	55	7	91	64.3	1,191.8
	문교/사회	92	161	254	176.7	58.3
	기타	96	79	27	-71.4	-65.3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 서울 대부분 지역의 하락세 속에 강동구, 금천구의 건설경기 호조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대부분 구에서 감소한 반면, 강동구(3,496.1%), 구로구(396.6%), 강서구(152.1%)에서는 증가
 - 상업용 건축허가면적도 대부분 구에서 감소하였으나, 양천구(67.7%), 강서구(32.4%)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 ✓ 건설발주액은 상승세
 - 서울의 건설발주액은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세와는 대조적으로 5월중 80.1%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서울의 건설발주액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 53.9%보다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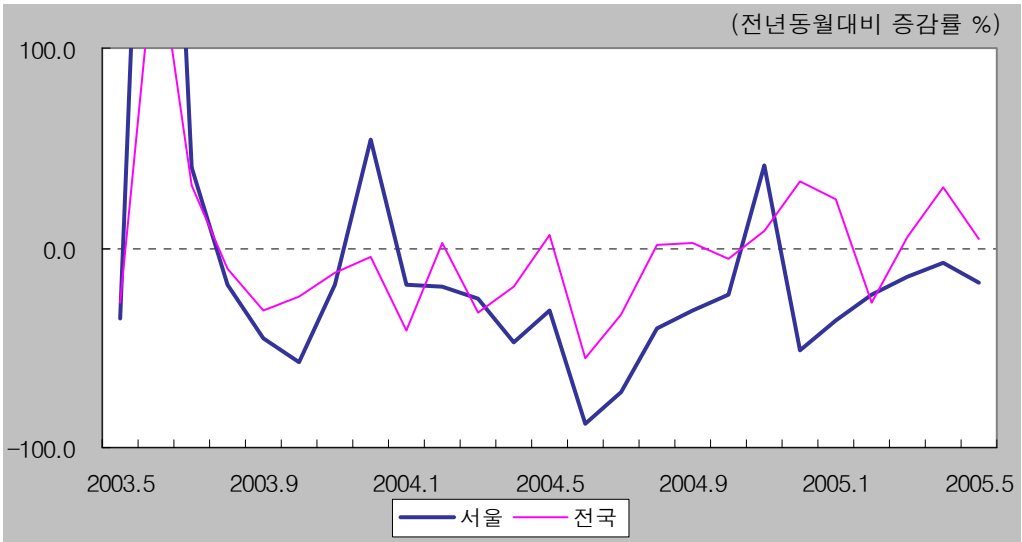
- ✓ 공공부문발주 대폭 증가
 - 공공부문발주와 민간부문발주는 각각 803.7%와 66.4% 증가하여, 공공부문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건축부문발주는 88.6% 증가한 반면 토목부문발주는 30.2% 감소하여 건축부문발주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건설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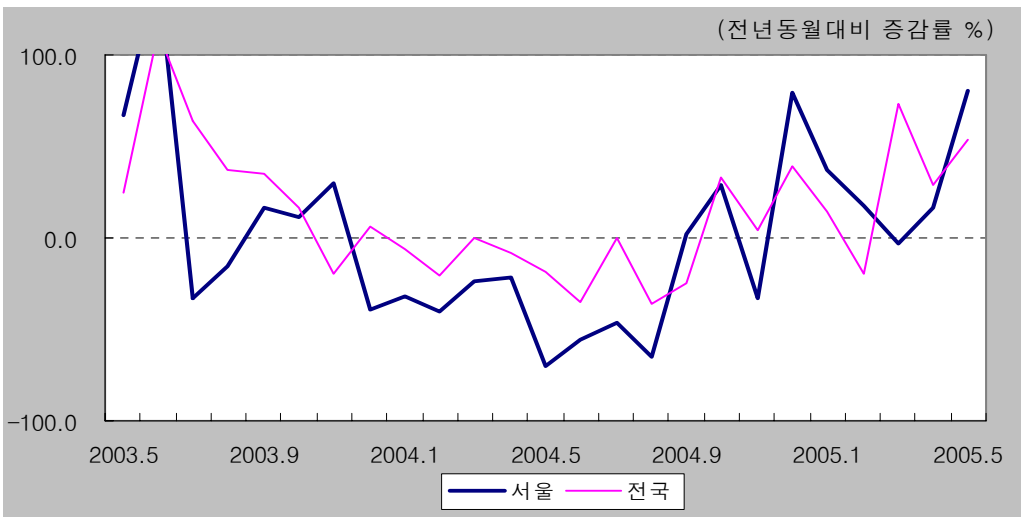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5	2005.4	2005.5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5,647,192	6,550,177	8,689,589	53.9	32.7
서울		639,694	1,222,703	1,152,071	80.1	-5.8
발주자별	공공	33,497	569,191	302,698	803.7	-46.8
	민간	509,902	633,512	848,720	66.4	34.0
공종별	건축	595,110	1,181,544	1,122,582	88.6	-5.0
	토목	17,860	16,885	12,474	-30.2	-26.1

자료: 서울통계사무소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발주액 추이

| 주 · 택 · 가 · 격 |

부동산 시장 상승세 지속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 지속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정부의 5.4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
 - 주택매매가격은 5월중 0.6%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5%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강북, 강남의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강남이 0.9% 상승폭을 보임
 - 구별로는 강남지역 가운데 서초구(2.1%), 강남구(1.7%), 영등포구(1.7%), 송파구(1.6%)와 강북지역의 용산구(1.7%), 마포구(1.2%)의 상승폭이 커 눈길을 끌었음
 - 반면 강서구(-0.5%), 강북구(-0.3%), 노원구(-0.1%)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세 지속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1.0%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5	2005.2	2005.3	2005.4	2005.5
전국	0.0	0.3	0.4	0.6	0.5
서울	0.1	0.6	0.3	0.7	0.6
아파트(서울)	0.2	1.0	0.5	1.2	1.0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0	0.2	0.3	0.2	0.3
강남	0.2	1.0	0.4	1.2	0.9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두드러짐

- 지역별로는 강북이 0.3% 상승한 반면 강남은 1.5% 상승하여 지역별 상승폭의 차이가 큼
- 구별로는 강남지역 가운데 영등포구(2.9%), 서초구(2.8%), 강남구(2.1%), 송파구(2.1%)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큼
- 반면, 성북구(-0.4%), 강서구(-0.1%), 노원구(-0.1%)는 소폭 하락

✓ 서울의 전세가격은 하락

-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된 반면, 서울의 전세가격은 5월중 0.1% 하락
- 강북은 0.2% 하락한 반면 강남은 지난달 전세가격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 구별로는 강서구(-1.6%), 동대문구(-1.4%), 강동구(-0.8%), 중랑구(-0.8%)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금천구(0.9%), 서초구(0.9%)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월중 0.1% 상승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4%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0.3%)은 상승한 반면 강북 아파트 전세가격(-0.2%)은 하락세
- 구별로는 서초구(1.8%), 양천구(1.0%), 영등포구(0.8%)의 상승폭이 크고, 강서구(-1.3%), 강동구(-1.0%), 노원구(-0.6%)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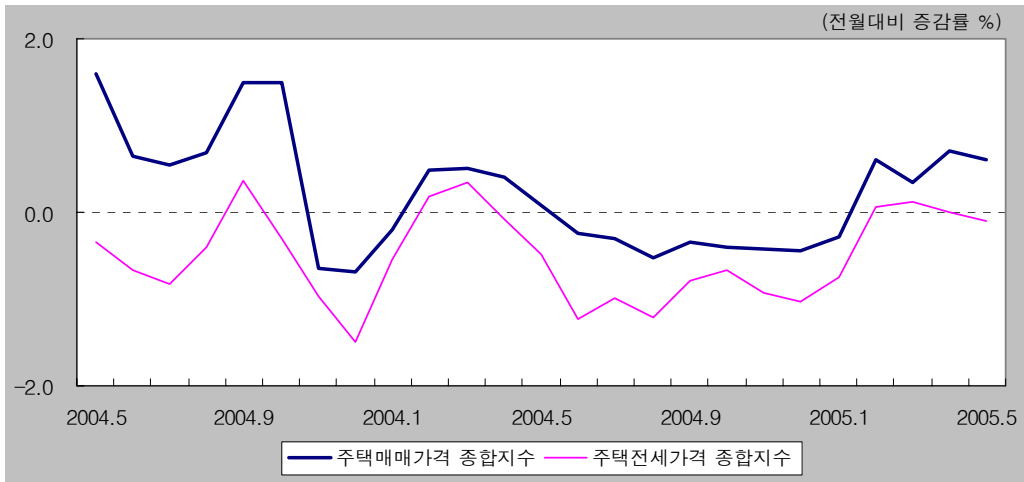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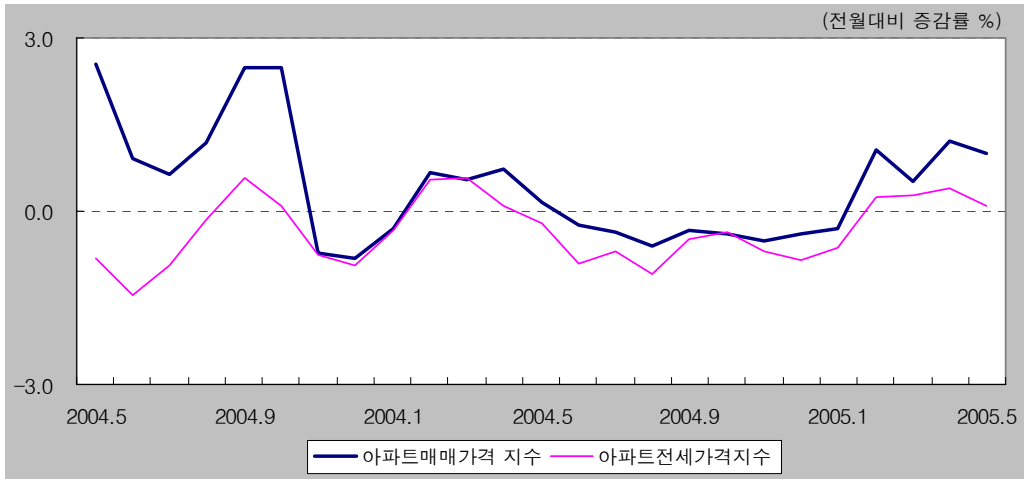
구분		2004.5	2005.2	2005.3	2005.4	2005.5
전국		-0.2	0.2	0.4	0.4	0.1
서울		-0.5	0.1	0.1	0.0	-0.1
아파트(서울)		-0.2	0.2	0.3	0.4	0.1
지역별	강북	-0.4	-0.1	0.2	-0.3	-0.2
주택전세	강남	-0.6	0.2	0.1	0.4	0.0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